

2026-1기신사상특강  
기말레포트

##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상(相)의 이해

차이의 분별과 인식 치유의 철학

불교교학전공 석사1학기  
이연경 20260261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제기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3. '상(相)'의 어원적 기원과 언어적 굴절

### II. 사상사적 기반과 '상(相)'의 심리적 범주화

1. 굴절어의 표상 구조와 고립어적 제약의 충돌
2. 제9식 아마라식(阿摩羅識)과 오염된 망상(妄相)의 발생 메커니즘

### III. 『금강삼매경론』 6품에 나타난 상(相)의 해체 과정

1. 「무상법품(無相法品)」: 이분법적 분별의 철폐와 무상(無相)의 선언
2. 「무생행품(無生行品)」과 「본각리품(本覺利品)」: 실천적 지평과 본각의 회복
3. 「진성공품(眞性空品)」: 진성공(眞性空)과 화쟁(和諍)의 성립

### IV. 원효의 인식 치유론: 무분별지(無分別智)와 일심(一心)

1. 무상(無相)의 참된 의미: 맹목적 허무가 아닌 사실 그대로의 차이 긍정
2. 치유의 언어로서의 '일(一)'과 일미(一味)의 발현

### V. 상(相) 해체의 실천적 지평과 현대적 의의

1. 방편(方便)으로서의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과 이상파상(以相破相)의 논리
2. 보임의 전환(Seeing-as)과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

### VI. 결론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의식

인간이 겪는 모든 번뇌와 세간의 갈등은 세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인식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불교 철학은 이러한 인지적 오류의 근저에 대상을 고정된 실체로 포획하고 범주화하려는 ‘상(相)’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생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현상 세계의 격류 속에서 자의적인 명칭과 개념의 틀을 세우고, 그것을 영원불변한 실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나와 타자를 분리하고, 주관과 객관을 대립시키며, 자신이 스스로 축조한 기호의 성벽 안에 갇혀 고통받는다.

신라의 사상가 원효(元曉)는 그의 기념비적 저술인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통해 이 ‘상(相)’이 지닌 분별의 폭력성을 날카롭게 해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효가 파악한 상의 개념이 단순한 시각적 형상이나 외형적 껍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 관행과 심리적 조작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복합적인 인식론적 구조물임을 밝히는 데 있다. 원효는 텍스트 내부의 정교한 논리적 서사를 통해 이 닫힌 인식의 감옥을 철저히 파괴하고, 차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이 서로 걸림 없이 상통하는 통攝(通攝)의 지평을 열어젖히고자 했다. 박태원은 원효의 『금강삼매경』 6품 해석에서 여섯 품이 제각기 다른 관행(觀行)의 수행법을 말하지만, 그 일관된 목적은 ‘상(相) 깨뜨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삶과 세계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원천을 인간에게서 찾는다면, 결국 문제는 인식의 오염으로 귀착된다. 박태원은 그

인식의 오염을 “相에 집착하여 분별하는 병”으로 요약하고, 그 병을 다스리는 행위를 “상相 깨뜨리기”라고 설명한다.<sup>1)</sup>[1] 이 관점은 『금강삼매경론』에서 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무상법품無相法品」을 중심으로, 무상無相이 단순히 모든 형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상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는 수행적 전환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강삼매경론』의 相 개념이 인식론, 수행론, 해탈론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성격과 한계

다만 본고는 『금강삼매경론』 전체에 대한 포괄적 연구도 아니고, 相 개념을 둘러싼 여러 학설을 넓게 비교·논증하는 전문 논문도 아니다. 필자는 아직 『금강삼매경론』과 원효 사상에 대한 공부가 깊지 못하므로, 본고는 박태원의 『금강삼매경론』 해석 가운데 相을 다룬 부분과, 그와 관련된 원효의 경론 본문 일부를 바탕으로 相의 의미를 이해해 가려는 소논문형 레포트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박태원의 해석을 길잡이로 삼아, 『금강삼매경론』에서 相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하는지, 무상법품에서 왜 相을 비워야 하는지, 그리고 相을 깨뜨린다는 것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어떤 수행적 전환을 뜻하는지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점에서 본고는 논증적 연구라기보다 이해를 위한 탐구가 낫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일은 오히려 본고의 성격을 분명히 해 준다. 본고는 이미 완성된 결론을 주장하기보다, 『금강삼매경론』의 相 개념을 따라가며 그 의미를 학습하고 정리하는 글이다.

『금강삼매경론』이 지닌 인식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원효가 이 텍스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 박태원 교수의 연구는 이 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학술적 이정표를 제시한다. 박태원에 의하면, 원효가 주석한 6품은 제각기 다른 관행(觀行)의 수행법을 말하고 있으나,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일관된 목적은 다름 아닌 ‘상(相) 깨뜨리기’다. 개인의 삶과 세상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망치는 원천을 외부의 물리적 조건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 ‘인식의 오염 문제’로 귀착된다. 원효는 이 심각한 인식의 오염을 “상(相)에 집착하여 분별하는 병”이라 진단하였다. 인간과 세계의 오염을 치유하려면 이 고질적인 개념 환각을 다스려야 하며, 그 처방전이자 치유행위가 바로 상 깨뜨리기인 것이다. 따라서 원효가 무너뜨리고자 한 상은 특정 학파의 교학적

---

1) 박태원, 금강삼매경론. 상, 세창출판사, 2020 p.28~173

이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욕망과 사적 언어가 세계를 왜곡하는 보편적인 분별망상 일체(一切相)를 향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본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 3. '상(相)'의 어원적 기원과 언어적 굴절

상(相)의 철학적 본질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의 언어적 맥락을 되짚어보아야 한다. 동아시아 한문 권역에서 '상'은 대개 형태(Shape)나 시각적 겉모습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 개념의 시원이 되는 팔리어 '니밋따(nimitta)'나 산스크리트어 '락샤나(Lakṣaṇa)'의 본래 의미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 짓게 만드는 '특징, 표지, 차이'에 가깝다. 즉, 그것은 멈춰있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 기관이 무수한 현상들 속에서 유의미한 경계선을 긋고 데이터를 솟아내는 역동적인 인식과 분별의 '작용'을 지시하는 용어다.

그러나 인도의 굴절어적 사유 체계에서 배태된 이 세밀하고 유동적인 분별의 논리가, 형태적 제약과 압축성이 강한 고립어인 한자 '상(相)'으로 번역 및 수용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의미의 굴절이 발생한다. 끊임없이 진동하는 차이의 현상은 한자의 고정성 안에서 '영원불변하는 독자적 형태'로 오인될 위기에 처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이러한 언어적 불화를 간파하고, 기호 안에 내재된 인간 의식의 폭력성을 날카롭게 분해해 낸다.

## II. 사상사적 기반과 '상(相)'의 심리적 범주화

### 1. 굴절어의 표상 구조와 고립어적 제약의 충돌<sup>2)</sup>

인간은 언어의 격자(grid)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세계를 인지할 수 없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현상을 인지 가능한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 인간은 언어라는 칼로 세계를 분절하고 분류한다. 이 범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식의 부산물이 바로 고착화된 '상(相)'이다. 대상을 언어로 지시하는 순간, 대상이 본래 지니고 있던 생생하고 맥락적인 '사실 그대로의 차이'는 거세되고, 오직 주관적인 필요와 잣대에 의해 재단된 '왜곡된 차별상(妄相)'만이 남는다.

원효는 이 지점에서 상이 지닌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유기적인 차이와, 인간의 마음이 '동일성'이라는 폭력을 가해 조작해 낸 망상을 엄격히 구분한 것이다. 중생의 비극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자의 연기(緣起)적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후자의 정적인 언어적 망상을 대상의 궁극적 실재라고 맹신하는 데서 비롯된다.

2) 김성철, *중관사상*, 민족사, 2017, p.60~p.62

## 2. 제9식 아라야식(阿摩羅識)과 오염된 망상(妄相)의 발생 메커니즘

『금강삼매경』은 중관(中觀)의 공(空) 사상과 유식(唯識)의 심식(心識) 사상을 여래장(如來藏)을 매개로 회통시킨 대승불교의 결정체다. 특히 이 경전은 유식학파가 주장하는 제8식 아뢰야식(阿賴耶識)의 더 깊은 근거에, 완벽하게 청정한 근본 식(識)인 제9식 아라야식(阿摩羅識, 無垢識)이 존재함을 천명한다.

이러한 유식학적 지형도는 상(相)의 발생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명한다. 아뢰야식은 무명(無明)으로 인해 온갖 번뇌와 망상의 종자를 품고 있는 오염된 의식의 저장고다.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 세계의 굳건한 형태[相]들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뢰야식에 저장된 종자가 투사되어 나타난 마음에 비친 그림자[顯現]에 불과하다. 즉, 상(相)을 빚어내는 심리적 공장이 곧 아뢰야식이다. 반면 아라야식은 어떠한 언어적, 심리적 상의 찌꺼기도 묻지 않은 우주적 청정의 바탕이다. 원효가 상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존재론적 근거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오염 없는 아라야식임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스스로 축조한 허구의 형상[相]을 실체라 믿는 '인지적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상의 해체는 곧 병든 아뢰야식을 정화하여 본래의 여래장을 회복하는 거대한 치유의 과정이다.

## III. 『금강삼매경론』 6품에 나타난 상(相)의 해체 과정

### 1. 「무상법품(無相法品)」: 이분법적 분별의 철폐와 무상(無相)의 선언

『금강삼매경론』의 실질적 시작을 알리는 제2품 「무상법품」은 모든 수행의 첫 관문에서 왜 가장 먼저 '상(相)'을 비워내야 하는지를 명징하게 논증한다. 원효는 론(論)에서 품명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의 「무상법품」은 관찰되는 법(所觀法)을 보인 것이다. 이 법은 일심으로 여래장의 본체이다. 무상(無相)이란 무상관(無相觀)<sup>3)</sup>이니, 모든 형상을 타파하기 때문이다."

무상(無相)은 모든 형상을 타파하는 평등관의 관찰법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적지[所觀法]가 분별이 멈춘 청정한 '일심(一心)'이기 때문에,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有)와 무(無), 주관과 객관을 가르는 이분법적 상을 가차 없이 부수어야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원효는 제불의 지혜를 "일체의 상을 타파하고 제법의 실상에 통달하는 것(破一切相 通達諸法實相)"<sup>4)</sup>이라 규정한다. 여기서 타파되는 일체의 상이란 앞서 언급한 개념 환각 전체를 뜻한다.

3) 무상관無相觀 : 무분별상관無分別相觀이라고도 한다. 분별상이 없는 관찰로서 평등관平等觀에 통한다.

4) 諸佛智地。入實法相。決定性故。此下第二正發言說。此中有二。一者長行。二者重頌。初長行中。亦有二分。一略標分。二廣說分。略標分中，金剛三昧經論卷上 H0017 v1, p.609b21-b24

이때 제법의 실상, 즉 '진실한 법상(實法相)'은 인간의 망상과 대비되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원효는 이를 '결정성(決定性)'이라는 단어로 압축한다. 중생의 허구적 상과 달리, 진실한 법상은 부처가 인위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 않든, 본래부터 스스로 그러한 방식으로 꼭 차 있는 진여의 성품 자체가 결정성이다. 마음의 동요가 멎고 이 결정성을 자각할 때, 사된 상은 무너지고 내면에 숨겨져 있던 청정한 '공덕상(功德相)'이 온전하게 그 빛을 발하게 된다. 「무상법품」은 『금강삼매경론』의 相 이해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무상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별상을 타파하여 관찰되어야 할 법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相의 타파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수행적 전환이다.

## 2. 「무생행품(無生行品)」과 「본각리품(本覺利品)」: 실천적 지평과 본각의 회복

망상이 해체되면, 애초에 생겨나고 사라질 고정된 본질조차 없음을 통달하는 제3품 「무생행품」의 지혜로 도약한다. 허구의 상이 텅 비어있음을 체득한 수행자는 더 이상 외부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실천행을 닦는다. 이는 제4품 「본각리품」의 본각(本覺) 사상으로 직결된다. 중생의 병든 마음은 외부에서 새로운 진리나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왜곡하던 분별망상의 안경을 벗어 던지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내재되어 있던 본래의 깨달음[本覺]이 찬란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깨달음(始覺)은 획득이 아니라, 상의 포기를 통한 본연의 회복이다.

## 3. 「진성공품(眞性空品)」: 진성공(眞性空)과 화쟁(和諍)의 성립

제6품 「진성공품」에 이르러 원효는 참된 성품이 비어있음[眞性空]을 역설한다. 여기서 공(空)은 만물이 소멸한 백지상태의 허무가 아니라, 오염된 사적 '상'이 깨끗이 비워진 절대적 개방의 자리를 뜻한다. 개인의 닫힌 상이 텅 비었기에 역설적으로 우주의 모든 차이를 거리낌 없이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여래장이 성립한다. 이 텅 빈 바탕 위에서 원효 철학의 정수인 화쟁(和諍)이 도출된다. 수많은 교학적 대립과 쟁론은 결국 학파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이론적 틀을 유일한 '상'으로 고집했기 때문에 발생한 병리 현상이다. 상의 허구성을 꿰뚫어 볼 때, 백 가지 논쟁[百家之異諍]은 비로소 배척을 멈추고 거대한 하나의 진리 속으로 화해한다.

## IV. 원효의 인식 치유론: 무분별지(無分別智)와 일심(一心)

### 1. 무상(無相)의 참된 의미: 맹목적 허무가 아닌 사실 그대로의 차이 긍정

원효가 강조하는 '무상(無相)'은 현상계의 구체적인 형태나 다채로운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가 부수고자 했던 것은 대상에 부여된 '왜곡된 망상'뿐이다. 즉, 무상이란 현실의 생생한 차이들을 몽개버리는 맹목적 백지화가 아니라, 대상에 덧씌워진 동일성과 실체성이라는 억압적 껍데기를 걷어내는 인식론적 해독 작업이다.

주관적 욕망이 조작해 낸 분별의 동요가 그칠 때, 우리는 대상을 나와 독립된 고정물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사실 그대로의 차이'로서 명증하게 대면할 수 있다. 분별망상이 사라진 자리에 드러나는 이 명석한 지혜를 무분별지(無分別智)라 한다. 무분별지는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가 아니다. 사적인 잣대로 분별하려는 탐욕이 멎었기에, 오히려 현상의 미세한 차이를 가장 정확하고 평등하게 관찰하는[無分別而分別] 궁극의 지성이다.

## 2. 치유의 언어로서의 '일(一)'과 일미(一味)의 발현

이러한 인식 치유의 전 과정에서 원효는 일심(一心), 일각(一覺), 일미(一味) 등에 쓰이는 '일(一)'이라는 기호를 대단히 독창적으로 구사한다. 원효 철학에서 '일'은 수학적 단일성이나, 개별자들의 고유성을 억압하여 하나의 색채로 통일시키는 전체주의적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질적인 차이[相]들이 서로 밀어내는 관성을 잃고 막힘없이 교섭하도록 만드는 역동적인 상통(相通)의 에너지이자 동사(動詞)다.

따라서 '일(一)'은 차이를 억압하는 동일성의 언어가 아니라, 차이에 묻은 배타적인 번뇌를 씻어내는 '치유의 언어'다. 수많은 냇물이 바다에 모여 각자의 근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로 융합된 짠맛[一味]을 내듯, 오염된 상이 치유되어 도달한 일심의 경지는 못 생명들의 이질적인 형태[相]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껴안는 가장 넓고 따뜻한 인식의 바다다.

## V. 상(相) 해체의 실천적 지평과 현대적 의의

### 1. 방편(方便)으로서의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과 이상파상(以相破相)의 논리

텍스트 내부에서 전개된 상(相)의 타파와 인식 정화의 논리는, 불교의 근원적 서사인 붓다의 출가 여정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철학적 실천으로 육화(肉化)된다. 태자 싯다르타가 동, 남, 서문에서 늙음, 병듦, 죽음의 모습을 목도한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의 궤적은 인간 실존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다.

영원한 젊음과 건강이라는 허구적 동일성[妄相]의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범부들을 일깨우기 위해, 여래는 노병사라는 가장 처절한 한계 상황의 현상[相]을 의도적으로 시연한다. 이것은

고정된 상에 취해 인지적 질환을 앓고 있는 중생의 병을 고치기 위한 대승불교 특유의 거대한 방편(方便)이다. 경전에서 여래가 도솔천에서 내려와 열반에 들기까지의 팔상(八相)의 방편과 신통을 펼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사문유관상은 거짓된 상(망상)을 부수기 위해 역설적으로 생로병사라는 또 다른 강력한 현상의 상을 처방전으로 던지는 '상(相)으로써 상(相)을 파괴하는[以相破相]' 치밀한 해체론적 실천이다. 붓다는 마지막 북문에서 세속의 물리적 구속을 초월한 수행자의 고요한 모습[沙門相]을 대면함으로써, 일체의 망상이 붕괴된 무상(無相)의 지평을 열어젖혔다. 싯다르타가 성문 밖을 나서며 온몸으로 증명했던 이 장엄한 상(相)의 붕괴 서사를 정교한 교학적 텍스트로 치밀하게 번역해 낸 결과물이 바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보임의 전환과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

원효가 해골물을 통해 겪은 이 인식론적 지진은 20세기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철학적 통찰과 놀라운 접점을 형성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을까? 비트겐슈타인은 오리와 토끼의 형상이 겹쳐진 도형을 통해, 물리적 대상은 미동도 하지 않으나 관찰자가 그것을 대하는 개념적 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인지되는 "양상의 변화 혹은 "보임의 전환을 논의했다.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논파한 상(相) 역시 외부에 고정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인연과 마음의 지향성에 따라 끊임없이 이행(shift)하고 다르게 현현하는 가변적 양상일 뿐이다. 원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인지적 환각 메커니즘 자체를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중생을 구원하고자 했다. 원효는 무상(無相)의 지혜를 통해 이 사적이고 편협한 기준들을 부수고, 차이들이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상호 개방되는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을 찬란하게 완성한 것이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상(相)'의 개념이 지니는 언어적 굴절과 심리적 메커니즘, 그리고 궁극적인 인식 치유의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박태원의 『금강삼매경론』 해석과 「무상법품」 관련 원효 본문을 중심으로 상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금강삼매경론』 전체를 포괄하거나 여러 학설을 비교한 연구는 아니며, 상 개념을 이해해 가기 위한 소논문형 레포트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도 몇 가지 핵심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원효에게 있어 상(相)은 단순히 사물의 시각적 외피가 아니라, 언어적 관습과 심리적 무명(無明)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인식의 감옥'이자 일체의 분별망상이다. 범부들은 아뢰야식에 찌든

마음으로 대상을 유무(有無)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며 자신만의 닫힌 이데올로기의 성(城)을 쌓는다. 원효는 6품의 치밀하고 정교한 관행을 통해 모든 수행의 일관된 목적이 바로 이 병든 성벽을 쳐내는 '상 깨뜨리기'에 있음을 논증했다. 붓다가 사문유관상의 궤적을 통해 이상파상(以相破相)의 거대한 방편을 시연하고 원효가 어두운 고분에서 해골의 상을 정면으로 통과하여 깨달았듯, 상의 타파는 현실 세계의 부정이 아니라 철저히 삶 의 현장에 뿌리박힌 실천이다. 인식의 렌즈를 덮고 있던 삿된 망상(妄相)을 벗어 던짐으로써, 본래 내재되어 있던 청정한 본각(本覺)을 회복하고 만물이 지닌 사실 그대로의 차이를 긍정하는 무분별지(無分別智)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원효가 말하는 무상(無相)의 위대한 치유다.

수많은 가짜 이미지(상)와 파편화된 기호에 둘러싸여, 각자가 쥐고 있는 편견의 잣대를 절대적 진리라 맹신하며 타자를 배척하는 현대의 분열된 사회 속에서 원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다. 자신이 만들어낸 언어와 개념의 구속에서 벗어나 상호 개방적이고 평등한 차이들의 연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금강삼매경론』의 해체론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일심(一心)과 일미(一味)의 궁극적 진실이다.